일반논문

아스톤本『隣語大方』의 特異 漢字 表記語 考察

- 韓·中·日 言語史資料의 檢討를 通하여 -

申忠均*
shinck@jbnu.ac.kr

Contents

Ⅰ. 머리말
Ⅱ. 誤記
Ⅲ. 通用字와 一般的 誤用
Ⅳ. 特殊 用語의 使用
Ⅴ. 맺음말

Abstract

アストン本『隣語大方』には、日本や中国の言語史資料では一般的には確認できない特異漢字表記語が用いられている場合があるが、この中には現代韓国語においてもその利用を確認できないものが多数ある。本稿は、このような漢字語を対象として検討した結果をまとめたものである。

特異漢字表記語には、まず誤記と見られる類いのものがある。これらには、単純誤記の他に、字形類似・字音類似・音形類似から来る誤記など、いくつかのパターンがあることが見受けられる。このなかで特に多いのは音形類似から来る誤記の場合であるが、これは漢字の造字原理である六書の中で形声字が多いことと関わりがあるように思われる。

また、韓国、中国、日本の三国において普通に用いられていた通用字、俗字の使用も見られる。他に、固有の韓国語と思われる語彙を漢字で表記している場合も見られるが、後者は当時の他韓国語史資料にも同じ表記が見られることから考えるに、当時の一般的な用字法であったことが認められる。

もっとも興味を引くのは、古今の中国・日本の言語史資料ではなかなか確認できない漢字表記語が見受けられることである。これらには、語形そのものを確認できない場合と、語形

* 전북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원. 일본어학 전공.
本研究の一部は、日韓文化交流基金の2008年度招聘フェローシップの助成を受け、研究された。記して感謝申し上げる。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は存在するもののアストン本での意味を確認できない場合の二つのタイプがあるが、両者とも単にアストン本だけではなく、他の韓国語史資料でも広く用いられていたことを、実例を通して検討した。また、この類いの語彙は主に経済活動や行政関連の用語に多いことが特徴的であるとも言及した。

アストン本には相当数の特異漢字表記語が認められるわけだが、この点から考えるに、『隣語大方』を含む朝鮮資料における漢(字表記)語の研究が待たれると言わざるを得ない。また、アストン本以外の異本での様相をも検討する必要があるようにも思われる。

Key Words : 隣語大方、アストン本、 漢字語、表記
Inodaebang(Ringotaiho), Aston Version, Chinese Origin Word, Notation

Ⅰ. 머리말

왜학자료『隣語大方』은 주지하다시피 한글한자혼용의 한국어문장과 한자카타카나(「朝鮮刊本」의 경우 한자히라가나)혼용의 일본어문장의 대역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문장에도 일본어문장에도 각각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 한자어의 대역양상은 다종다양하다. 필자는 이전에 「아스톤本(1841년 필사)」의 한국어본문에 보이는 한자표기어가 일본어대역문에서 어떻게 대역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여 보고한 바가 있다.[1] 그 대역방법을 大別하면 音訓讀形과 說明形과 代替形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상 한자어의 약 60%가 代替形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그러한 대역방법이 선택된 배경에는 일본어로서의 자연스러움 등이 있었으리라 분석하였다.

한편 그것은 한국어본문에 보이는 한자표기어가 일본어로서는 부자연스럽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어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는 지면 사정상 자세하게 고찰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아스톤本의 한국어본문에 보이는 한자표기어 중에서 특히 代替形으로 대역된 한자표기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게 된 특이한 한자어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한 한자어들은 같은 한자를 표기수단으로 삼아온 일본어와 중국

1) 졸고(2010), 「아스톤本『隣語大方』의 漢字語 対訳」「日本語文学」47, 韓国日本語文学会, pp.101-12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어의 고전적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현대한국어의 한자어로서도 그 사용을 일반적으로는[2] 확인할 수 없거나 다른 특이한 표기를 취하고 있는 한자어일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대상으로 그 표기 또는 어휘에 보이는 두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대상으로 삼은 한자어는 한국어본문에 보이는 한자표기의 단어이다. 이는 실제로는 한자어이지만 한자로 표기되지 않은 것은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실상은 고유한 한국어임에도 한자어로 쓰여 있는 경우는 그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3] 이러한 한자표기어를 대상으로 먼저 한국의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표준국어대사전』누리집과 기타 한국어사전을 통하여 현대어로서의 표기와 의미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와 다름이 엿보이는 어휘를 고찰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이러한 어휘를 대상으로 일본의『大漢和辞典』과 중국의『漢語大詞典』, 한국의『漢韓大辭典』『韓國漢字語辭典』등의 대형 사전류를 검토하고, 이어서 중국의『漢典』, 타이완의『漢籍電子文獻』, 그리고 한국의『국어사말뭉치』『한국고전종합DB』등의 대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그러한 표기의 존재여부와 의미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隣語大方』에서의 의미 파악은 일차적으로는 일본어대역문에 보이는 대역어 또는 구 등의 표현을 참고로 하였으나『李朝語辭典』『17세기 국어사전』등의 사전류도 이용하였다.[4]

---

2) 주지하다시피 한(자)어의 존재, 특히 이체자의 미미한 표기의 차이 등의 여부를 모든 古典籍에서 검토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언어연구 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온 한중일 삼국의 대형사전류, 대형 데이터베이스류 등을 검색하여 그 판단의 근거로 삼았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 한자어가 일본과 중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세는 佐藤稔(2005、pp.144-145)의 언급이 참고가 된다.

3) 「아스톤本」의 한자표기어는 그 자수에 따라 1자한어는 물론이고 5자한어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2자로 된 한어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2자한어 외에는 그 수가 많지 않고, 또한 구나 문장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국어사말뭉치』는 통합형 한글 자료 처리기(깜짝새) 버전 1.5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이하 본고에서 인용하는 용례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위 사전류와 데이터베이스류에서 원용하였음을 밝혀둔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Ⅱ. 誤記

먼저 이 장에서 보게 될 한자표기어들은 위 사전류 등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특수한 의미를 갖는 단어 또는 임시일어로도 생각할 수 없는 단어들이다. 즉 오기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표기들이다. 이에 속하는 한자표기어들은 크게는 字形類似에서 온 오기로 보이는 경우와 字音類似에서 온 오기로 보이는 경우, 그리고 이 둘이 複合的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예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5)]

2.1. 單純 誤記

위의 3가지 유형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더 단순한 오기로밖에는 볼 수 없는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아래의 [艮]자와 관련된 예들을 보자.

◎ 以此以彼(이ᄎᆞ이피)의 艮貨(은화)가 넉ᄂᆞᆞᄒᆞ오면 多少間 動得(동둑)이 되올ᄃᆡ 艮 消息은 至今 漠然(막연)ᄒᆞᄋᆞᆸ고 (一23b)[6)]

カレコレニツイテキンスカユルヤカニシテコサレハ、タシヤウノアイタハハタラキヨウコサルトコロニ、キンノタヨリハ今ニ漠然トシテ、

이 부분은 일본어 대역문의 문맥으로 볼 때 각각 [銀貨]와 [銀]가 예상되는 곳인데 좌측의 부수[金]이 떨어져 나간 [艮貨]와 [艮]으로 표기되어 있다. [銀]과 [艮]은 새삼 말 할 필요도 없이 그 뜻은 물론이고 한국어 한자음 또한 각각 [은]과 [간]으로 전혀 다른 자이다. 이는 [銀貨]와 [銀]이 예를 들면,

◎ 銀貨(은화) 失時(실시)ᄒᆞᄋᆞᆸ기로 더욱 큰 是非(시비)가 되어、(六5a)

マタキンクワモトキヲウシナウニツキ、イヨᄂᆞᄂᆞ大ナヲリワタリニナツテ、

---

5) 이러한 오류는 단지 왜학자료 또는 조선자료에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한편, 왜학자료에 보이는 오류에 대해서는 오오츠카(2003), 이형미(2007)등에도 언급되어 있다.

6) 용례를 제시할 때의 漢字로 된 숫자는 卷을 아라비아 숫자는 葉을 a, b는 각각 앞뒷면을 나타낸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銀(은)을란 아직 ᄉᆞᆫ것 ᄀᆞᆺ오니 오ᄂᆞᆫ 대로 올지라도 (六6a)
キンスハマダナイヽヽ事ノヤウナモノユヱ、マイリシタイニマイルトモ、

와 같이 다른 곳에서는 바르게 표기된 형태가 보이는 것, 그리고 (一23b)의 [艮貨]에 [은화]라는 한국어 音注가 붙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더라도 [艮]이 [銀]의 단순한 오기임을 알 수 있다.[7]

2.2. 字形類似에서 오는 誤記

다음으로는 그 음은 전혀 다르지만 형태가 닮았기 때문에 빚어진 오기로 볼 수 있는 예도 존재한다. 위에서 본 [艮]과 같은 경우도 실은 자형의 유사에서 온 오기로 볼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湿中]의 경우는 그 성격이 더욱 확실하다.

◎ 胡椒(호쵸)ᄂᆞᆫ 湿中(온듕)ᄒᆞ고 生薑(싱강)은 降氣(강긔)ᄒᆞ고 무우ᄂᆞᆫ 治痰(치담)ᄒᆞ매 이 세 가지ᄅᆞᆯ 黑糖(흑당)의 석거 고아셔 三冬(삼동)을 먹으면 좃ᄉᆞ오니 (六22a)
コセウハウチヲアタヽメ、セウカハシヤウキヲサケ、ダイコンハタンヲヲサムルニヨリ、コノ三ツノシナヲクロサトウニマゼアワセテ、サントウニタヘレバヨウゴザル。

이 경우는 문맥으로 보거나 일본어 대역문의 「内を温める」로 보거나 「한증(寒症)을 없애기 위하여 속을 덥게 함. 또는 그런 치료법을 나타내는 한의학에서의 [溫中]이 예상되는 곳이다. 그런데 아스톤本은 [湿中]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湿]은 [濕]의 약자인데 [溫]과는 매우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각의 음이 [습]과 [온]으로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는 자형의 유사에서 온 오기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8] 다만 이와 같이 순수하게 자형의 유사

7) 다음의 예는 [艮]을 [銀]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字体로 판단하건대 別筆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 即今 出艮/銀(출은)ᄒᆞ실 때의 당ᄒᆞ여 이럿틋 ᄒᆞ시니 尋思(심ᄉᆞ)ᄒᆞ여 (六12b)
タヾイマシユツキンノトキニアタツテ、カヤウニコサルニヨリ、フカクヲホシメサレテゴロウシマセイ。
8) [湿中]은 아래와 같이 중국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에서 온 오기는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2.3. 字音類似에서 오는 誤記

이 경우는 자형은 명확하게 다르지만 자음이 동일한 것에서 오는 것으로, 오기의 대부분은 이러한 유형에 속하며 여러 곳에서 상당수가 관찰된다. 몇 예를 들어보자면 아래의 [奇念], [塗棑]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다음의 예를 보자.

◎ 혹 數少(수쇼)히 나면 私計(ᄉᆞ계)로 업시ᄒᆞᆫ가 疑心(의심)ᄒᆞ여 罪責(지칙)이 잇ᄉᆞ올 거시니 十分(십분) 奇念(긔념)ᄒᆞ여 주ᄋᆞᆸ쇼셔 (一15b)

モシスクノウデレハ、内ゝハカリヘシタカトウタカワレテ、セメカコサロウニヨリ、ジウブンヲ心ソヱ下サレマセイ。

이 문장 중의 [奇念]이라는 곳에는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기대되는데 아스톤本에서는 「奇念ᄒᆞ다」라고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보이는 [奇念]이란 표기는 한국어사 자료에서는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의 漢文 古典籍에서도 좀체 찾아볼 수 없는 단어이다. 주지하다시피 [奇念]의 [奇]는 「기이하다 / ことなる，あやしい / 特殊的，稀罕，不常见的」[9]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자로 위의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다」라는 뜻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위의 뜻이 기대되는 한자어로서 [紀念] 또는 [記念]을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紀]와 [記] 그리고 아스톤本의 [奇]는 그 음이 동일함을 바로 간파할 수 있는데 아스톤本의 [奇念]은 이러한 이유에서 발생한 오기로 여겨진다.[10]

다음에 보는 「塗褙」 또한 字音의 유사에서 오는 오기라 여겨지는 예이다.

○ 夫婦衰薄以凶年相棄仮陸草遇水而傷以喩夫恩薄厚薙之傷於水始則湿中（重刊宋本十三経注疏附校勘記）

9) 訓 즉 한자의 의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어 / 日本語 / 中国語」의 순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또한 中国語의 字体는 簡字体로 통일하여 나타내기로 한다.

10) 조선간본에서는 「十分 紀念ᄒᆞ여 주ᄋᆞᆸ소」(四17b)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봐서도 오기로 여겨진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修補ᄂᆞᆫ 거의 다 ᄒᆞ엿ᄉᆞᆸ거니와 아직 房을 채 ᄭᅮ미지 못ᄒᆞ엿ᄉᆞᆸ기에 塗棑(도ᄇᆡ)나 다 ᄒᆞᆫ 후에 들게 ᄒᆞ엿ᄉᆞᆸᄂᆡ (二19a)

しゆりはすでにみないたしたれとも、またへやをとくとかさりゑませぬにより、ぬりかべなりとみなできてから、はいるやうにこさる。

「종이로 벽이나 반자, 장지 따위를 바르는 일」을 나타내는 [도배]의 한자표기는 「塗褙」이나 여기에서는 「배접하다 / うらうちをする / 把布或纸一层一层地粘在一起」의 [褙]가 아닌 「방패, 뗏목 / いかだ、たて / 水上交通工具，用竹木等平摆着连接起来做成，即筏子: 盾」을 의미하는 [棑]가 이용되고 있어 명백한 오기라 보인다. [褙]도 [棑]도 한국 한자음이 [배]로 같음에서 온 결과로 보인다.

2.4. 音形類似에서 오는 誤記

아스톤本의 한자어 오기의 대다수의 경우는 자형도 유사하고 게다가 자음까지도 유사하기 때문에 오는 잘못이 거의 대부분이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 그 중의 어느 것 하나가 주요 원인일 수도 있다. 우선은 다음을 보자.

◎ 그런 瘇患(둉환)이란 거슨 年少(년쇼)ᄒᆞ고 健壯(건장)ᄒᆞᆫ 사ᄅᆞᆷ의게ᄂᆞᆫ ᄆᆡ양 나되 濃汁(농즙)을 다 내오면 다시 나지 아니ᄒᆞᆫ다 ᄒᆞ매 (一4b)

ソノヤウナシユモツト申スモノハ、トシワカニシテサカンナ人ニハフタンデキレトモ、ウミシユルヲミナタシマスレハ、重テテキヌト申ニヨリ、

여기에서는 문맥상으로 보아도 일본어 대역문의 「うみしゅる(膿汁)」[11]로 보아도 「고름」을 의미하는 「膿汁」이 예상되는데 아스톤本에서는 「걸쭉한 즙」을 의미하는 「濃汁」으로 표기되어 나오고 있다. 음이 같고 형태가 비슷한 한자의 단순 오기로 여겨지는 예라 할 수 있다.

◎ 이 丸藥(환약)이 衣金(의금)은 샹ᄒᆞ여도 姓味(셩미)ᄂᆞᆫ 아모랏도 아니ᄒᆞ오매

11) 「うみしゅる」는 膿汁의 의미를 갖는 「うみしる」 또는 「うみじる」의 對馬島 방언형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브듸 범연히 쓰지 마옵소 (六23a)

此クワンヤクカキンコロモハソジテモ、セウハナニトモコサラヌニヨリ、必ヲロソカニヲモチイナサルナ。

한의학에서 「약효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약재의 성질과 맛」을 아울러 말하는 데에 이용되는 [성미]는 [性味]인데 아스톤本에는 [姓味]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性]과 [姓]은 같은 음을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자형에서도 부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같다. 이 예도 음형의 유사에서 오는 오기라 여겨진다.

또한 다음의 예는 음과 형태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 또한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다.

◎ 舩滄(션창)을 온젼이 修築(슈축)ᄒᆞ엿숩더니 ᄯᅩ 요ᄉᆞ이 風波(풍파)의 如前(여젼)이 샹ᄒᆞ엿다 ᄒᆞ오니 쉬이 修補(슈보)ᄂᆞᆫ ᄒᆞ오려니와 民力(민력)이 견ᄃᆡ지 못ᄒᆞ게 ᄒᆞ엿숩닉 (一11a)

センサンヲマツトウツキマシタニ、又コノホドノフウハニマヌノヤウニソンシタト申ニヨリ、ハヤクシユホハイタシマセウカ、ミンリヨクカコタユルモノテハコサリマセヌ。

문장의 모두에 나오는 「물가에 다리처럼 만들어 배가 닿을 수 있게 한 곳. 부두」라는 의미를 갖는 선창은 원래 [船艙] 또는 [船倉]이라 표기하는데 여기에서는 [舩滄]이라 하고 있다.[12] 여기에 보이는 [滄]은 「차다, 푸르다 / 寒い、水の色 / 寒，暗绿色(指水)」를 의미하며 [艙]은 「선창, 배의 화물을 쌓아 두는 곳 / 船の胴の間、貨物を積む所 / 船或飞机的内部」를 의미하는 데 그 음은 모두 [창]으로 같고 부수를 제외한 부분 또한 같은 글자인 [倉]이다. 이렇듯 형태도 같고 음도 같을 뿐만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둘 모두 부수가 [水] 또는 [舟]로 바다와 관련이 있는 자로 그 뜻 즉 훈조차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유사한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러한 오기를 유발시켰으리라 여겨진다.

그런데 다음의 [鄕瘖]과 같은 경우는 사뭇 다르다.

12) [船]과 [舩]은 같은 자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그런 말은 慶尙道(경상도) 사롬의 鄕瘖(향암)이지 셔울사롬 ᄒᆞᄂᆞᆫ 말이 아니오니 말을 ᄇᆡ흘지라도 셔울사롬게 ᄇᆡ호게 ᄒᆞᄋᆞᆸ소 (五18a)

サヤウナ言ハケイセウトウノ人ノナマリデ、都ノ人ノ申言テコサラヌニヨリ、言ヲナロウトテモ、都ノ人ニナラウヤウニサシヤレイ。

일본어 대역문에 보이는 「ナマリ(訛り)」에서 예견되는 한국어는 [鄕音(향음)]인데 아스톤本에는 [鄕瘖(향암)]으로 되어있다. [瘖(암)]이란 「벙어리 / おし / 哑, 不能说话」란 의미로 한국어 본문의 문맥으로 보거나 일본어 대역문으로 보거나 이곳에서 「벙어리」란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에는

○ 新來的莊家 - 새로 온 향암이 <朴通事諺解重刊 下36>

등에서 보듯이 [鄕闇(향암)]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골에서 지내 온갖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음. 또는 그런 사람」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점에서 생각해 보건대 아스톤本의 이 부분은 우선은 [鄕音(향음)]과 [鄕闇(향암)]을 혼동하고 게다가 [闇]과 [瘖]을 혼동한 결과로 보여진다.[13] 중층적인 잘못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오기는 그다지 예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위에서 보아온 아스톤本의 한자 오기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音形類似에서 오는 경우인데 이는 한자의 제자 원리인 六書 중에서도 形聲에 의해 만들어 진 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리라 여겨진다.

Ⅲ. 通用字와 一般的 誤用

3.1. 통용자 또는 속자

다음의 예들은 두 한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거나 또는 한쪽이 속자로

13) ○ 瘖, 通闇, 喻不能諫諍也。 (『中華大字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사용되었던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 특이 표기의 예이다. 먼저 통용자의 예를 보자.

◎ 憤然(분연)히 말을 ᄒᆞ면 져 편도 셩을 내고 되염즉ᄒᆞᆫ 일도 그릇되올 거시니 브듸 忿気(분긔)를 ᄎᆞᆷ으시고須便(슌편)토록 相議(샹위)ᄒᆞ시면 됴흘가 시보외 (一10a)

ハラタテゝモノヲ云ヱバ、サキモハラヲタテ、ナリソウナ事モナラヌモノテコサルニヨリ、必イカリヲヲコラヱナサレテ、シユンベンニコソウダンナサレタラハ、ヨロシカロウトソンジマスル。

◎ 朝得暮失(죠득모실)이라 어드며 즉시 이러ᄇᆞ리니 아니 痛忿(통분)ᄒᆞ온가 (四3a)

朝得暮失、モトメテサツソクウシナイマシタニヨリ、ナニトハラノタツテハゴザランカ。

먼저 여기에서는「화를 내다」의 의미와 관련된 표기를 보자. 일본어 대역문에 보이는「ハラタテル(腹立てる)」나「イカリ(怒り)」의 의미를 갖는 한자를 경우에 따라서는 (一10a)처럼 한 문장 안에서도 각기 다른 자를 이용하여 표기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분연]이나 [분기], [통분] 등은 [憤然], [憤氣], [痛憤] 등과 같이「결내다 / いきどほる / 因不満而忿怒或怨恨」의 [憤]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스톤本에서는 [憤然]을 제외하고는 [忿氣], [痛忿]과 같이「성내다 / いかる / 生气」의 뜻을 갖는 [忿]을 이용하고 있다. 이 [憤]과 [忿]은

○ 寡人忿然，含怒日久，吾欲使武安子起往喻意焉。(『戰國策』卷三、「秦」一)

○ 孔子讀易至損、益，未嘗不憤然而歎，(『淮南子』第十八卷、人間訓)

○ 宋江一見了吳偉兩個，正在偎倚，便一條忿気，怒髮衝冠，(『新刊大宋宣和遺事』、「新刊大宋宣和遺事元集」)

○ 六師見寶山摧倒，憤気衝天，更發瞋心，(『敦煌變文集新書』卷三十、「降魔變文」一卷)

과 같이 여러 자료를 통하여 통용자로 쓰이는 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스톤本의 표기는 위와 같은 통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1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음의 예

◎ 녀름이라도 비 오는 때는 溫突(온돌)의 드러 자면 濕氣(습긔)를 祛除(거졔)ᄒᆞ여 ᄀᆞ장 됴ᄉᆞ오니 (二12a)

ナツデモアメノフルトキハクツロニ入テネレハ、シツキヲサツテ、イカウヨウコサル。

에 보이는 [祛]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용자를 이용한 표기이다. 여기의 [祛除]는 한국어 본문의 문맥과 일본어 대역문의 「サル(去る)」에서 알 수 있듯이 「제거(除去)하다」의 뜻으로 그 자순이 현대어와는 역전된 형태임을 볼 수 있다. 다만 그 [거제]가 [去除]가 아닌 [祛除]임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몰아내다 또는 제거하다」란 의미의 [祛除]는

○ 黃文炳道,眼見得這人也結連梁山泊, 通同造意, 謀叛爲黨, 若不祛除, 必爲後患 (『水滸傳』 四十)

○ 胡卿敕旨，在祛除民害。朝廷命我，但云安撫軍民。委寄正不同耳。(『明史列傳』、「周忱」)

등에도 보이는데 여기에 쓰인 [祛]는 「떨다, 세다 / はらふ、やる、さる / 除去, 驅逐」라는 뜻으로 『廣韻』의 기술에 의하면 [去]와 통용하였다[15]. 한편 아스톤本의 [祛除]는 위 내용에서 보듯이 「濕氣(습긔)를 祛除(거졔)ᄒᆞ다 / シツキヲサル」라는 표현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한의학에서 「습사를 없애는 치료 방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 消除濕邪的統称」으로서 [祛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점과도 관계가 엿보여서 흥미롭다.[16]

---

14) [忿]과 [憤]의 통용에 대해서는 중국자료 『正韻』의 「忿、通作憤」이라는 기술을 통하여도 쉬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통분]의 경우 [痛憤]의 사용은 아래의 예처럼 확인할 수 있으나 [痛忿] 표기는 찾아볼 수 없다.

○ 猶以鸞輅在北之故，今其禍変若此，天下之所痛憤 (『朱子語類』 卷第一百二十七、「本朝」一)

15) ○ 祛, 去也。 (『広韻』, 「釈詁」二)

16) 『표준국어대사전』에는 [袪濕]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여기의 [袪]는「소매, 올리다, 떠나다 / そで、あげる、さる / 袖口, 挙起, 撩起」의 뜻으로, 『韓国漢字語辞典』과 『漢語大詞典』등에 의하면 [祛]와 [袪]는 통용되었다 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한 편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속자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는 예이다.

◎ 大丈夫(대댱부)ᄂᆞᆫ 不拘小節(블구쇼졀)이라 ᄒᆞᄋᆞᆸ거든 이 大事(대ᄉᆞ)를 小ㅅ(쇼ㅅ)ᄒᆞᆫ 일의 拘碍(구애)ᄒᆞ여 ᄒᆞ리 말리 ᄒᆞ시ᄂᆞᆫ 거슨 所見(소견)이 廣大(광대)ᄒᆞ단 말은 못ᄒᆞ올레 (四1a)

大丈夫不拘小節ト申シマスレハ、此ダイジヲスコシノ事ニカヽワツテ、セウノセマイノトヲヽセラルヽハ、リヤウケンノヒロイトハ申サレマセ。

무언가에 「거리끼거나 얽매임」을 일컫는 [구애]는 일반적으로 「막다, 거리끼다 / さまたぐ、へだてる / 妨害, 限阻」의 뜻을 갖는 [礙]를 이용하여 [拘礙]라 표기하는 데 이를 [拘碍]라 표기하기도 한다. 이는 다음의

○ 碍, 俗礙字 (正字通)

의 기술에서 알 수 있듯이 [碍]가 [礙]의 속자인 것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拘碍]라는 표기는 예를 들어

○ 本書에서는 이에 準하여 現代에도 쓰이는 말이라 할지라도 拘碍하지 않고, 李朝文獻에 기록된 語辭라면 모조리 採錄하였다[17]

와 같이 현재에도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표기이기도 하다.

3.2. 고유어의 한자 표기

본디 한자어가 아닌 고유어임에도 불구하고 한자어로 오인하거나, 내지는 당시 관용적으로 한자로 표기를 하는 경우는 한국어사 자료에서도 드문 일이 아니다.[18]『隣語大方』의 경우에도 그러한 양상을 쉬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중 明治刊本을 조사하여 보고한 것으로 이형미(2007)가 있다. 明治刊本은 한국어

17) 『李朝語辞典』의 「서문」
18) 입장에 따라서는 韓国制 漢字語라는 인식도 가능한 경우도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본문의 한글 표기 옆에 한자를 병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따르면 [싱각(生覺)] [밋몰(埋沒)ᄒᆞ다] [부쵹(咐囑)이다/ᄒᆞ다] [수전(手戰)] [비쳘(非節)] [씩(式)] [동무(同務/同謀)]등을 열거할 수 있다.[19]

물론 아스톤本에서도 이와 같은 예를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 대표되는 예를 몇 가지만 열거해 보기로 한다. 먼저 다음의 예를 보자.

◎ 買賣之道(매매지도)ᄂᆞᆫ 兩相和賣(냥샹화매)가 웃틈이오매 아모죠록 大都(대되) 確論(확논)ᄒᆞᄋᆞᆸ시고 順便(슌편)토록 ᄒᆞᄋᆞᆸ쇼셔 (二14a)

買賣之道双方ワヤウノアキナイカタイイチユヱ、ナニトソミナサマゴギロンナサレテ、シユンベンニナルヤウニナサレマセイ。

◎ 미리 날을 맛초와 定(정)ᄒᆞ여도 大都(대도ㅣ) 이리 드러오시기ᄂᆞᆫ 쉽지 아니ᄒᆞ온ᄃᆡ (三5b)

カネテ日ヲアワセテサタメテモ、ミナサマカヤウニ入テコサルキハヤスカリマセネトモ、[20]

[大都]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漢籍에서는 기본적으로 「大概, 大綱, 大部分」의 의미로서 사용되어 온 단어로, 아스톤本에 보이는 「皆, 全て, 総じて」와 같은 뜻은 쉬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한국어사 자료에 보이는

○ 인간사ᄅᆞᆷ을 대도 보게 ᄒᆞ뇌가 <『念佛普勸文』12>
○ 共通二百兩銀子 - 대되 ᄉᆡ빅량 은 <『朴通事諺解初刊』上20>
○ 通該…錢 - 대되 돈이 <『老乞大諺解』上10>

과 같은 예들에서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이 한국어사 자료의 예들에서 보면 한국어의 [대도] 또는 [대되]가 중국어의 [共通], [通該] 등의 대역으

19) 이형미(2007), pp.124-127.
20)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 우리 대되 의시ᄒᆞᄋᆞᆸ기ᄂᆞᆫ? 공 ᄲᅮᆫ이오니 (一13b)
ワレワレミナヽヽタノミマスルハ、ソノ元ハカリテコサルニヨリ、
◎ 아모죠로나 흥복ᄒᆞᆯ 도리를 단심으로 ᄉᆞ셜ᄒᆞᄂᆞᆫ 일은 대도ㅣ 미리 아ᄅᆞ시ᄂᆞᆫ 일이오매 (六10a)
ナニトゾタテナヲスミチヲマコトヲモツテ申マスル事ハ、ミナサマカネテヲシリナサレテノ事デコサルニヨリ、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두, 통틀어」등의 의미로서의 [大都]는 중국어 또는 일본어에는 없는 한국어 특유의 의미, 용법으로 이해가 된다.

◎ 내가 비록 迷劣(미렬)ᄒᆞᆸ고 買賣ᄒᆞᄂᆞᆫ 사ᄅᆞᆷ 듕의 말재 사ᄅᆞᆷ이라 ᄒᆞ여도 (六9b)
私カタトヒミレンニコサツテ、セウハイイタス人ノ中ニスヱノモノシヤト申テモ、

여기 보이는 [迷劣] 또한 중국과 일본의 문헌에서는 좀처럼 확인이 되지 않는 단어이다. 그것은 이 단어를 일본어 대역문이 「みれん(未練)」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일본어 대역문의 「みれん(未練)」은

○ かねて夜盗の用心を申付侍るゆへ、犬の声にをどろき未練のふるまひ仕り侍る（浮世草子·『花の名残』四）

에서 보는 바와 같이 「まだ事に熟練していないこと。また、そのさま。未熟」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편무진(2005)이 해석하고 있듯이 현대어의 [未練하다]의 뜻과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미련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迷劣]은 한국어사 자료에서는

○ 迷暗 - 그 미렬코 아득ᄒᆞᆫ 이를 타셔 ᄒᆞ더니 <『小學諺解』五119>

등에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한다.

[支離]는 중국, 일본의 한적 등에서는 일반적으로는

○ 公為支離之卒，因祝史揮以侵。(『春秋左傳』,「哀公」傳二十五年)
○ 嗚呼，聖人之言，奚支離多端，使人難曉若此邪（『語孟字義』上,「天命」)

와 같이 쓰여

○ 分散,分裂. 繁瑣杂乱. 离奇，虚妄. 流离，流浪.(『漢語大詞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分散する。また、ばらばらでとりとめのつかぬこと。/めちゃめちゃにする。(『大漢和辭典』)

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다. 이 [支離]가 아스톤本에서는

◎ 一疾(일질)이 支離(지니)ᄒᆞ여 職分內事(딕분닉ᄉᆞ)를 ᄯᅳᆺ대로 감당치 못ᄒᆞ올가 萬分憂悒(만분우읍)ᄒᆞ오나 (一20b)

一ノイタミカナガヒキマシテ、シヨクフンノコトヲ心ノトヲリニイタシヱマスルマイカト、ジウブン心ツカイニヲモイマシタニ

와 같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일본어 대역문에서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듯이 「ながびく(長引く)」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계속되는 시간이 지겹게 오래다」[21]의 의미에 가깝다. 이러한 의미의 [支離]는 중국과 일본의 문헌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찾아볼 수 없는데 한국어사 자료에서는

○ 마ᄌᆞᆷ 죵용ᄒᆞ여 뎌렁이렁 ᄉᆞᆲᄉᆞ오니 언머 지리히 너기ᄋᆞᆸ시ᄂᆞᆫ고 ᄉᆡᆼ각ᄒᆞᄂᆞ이다 <『捷解新語』 三26>

たまたまゆるりとしまるして、かれこれ申まるして、なんほうしつこうおもわしられうとそんしまるする

○ 傷易則誕이오 傷煩則支ᄒᆞ며 己肆物忤ᄒᆞ고

너모 쉬오면 곧 거ᄌᆞᆺ되오 너모 하면 지리ᄒᆞ며 내 모미 퍼뎌 ᄒᆞ면 ᄂᆞ미 ᄭᅥ려 ᄒᆞ고 <『飜譯小學』 八11> [22]

와 같이 『隣語大方』과 함께 왜학자료로 분류되는 『捷解新語』는 물론이고 諺解類 자료 등에서도 그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23]

---

21) 『새 우리말 큰사전』의 [지리하다]의 어휘 해설에서 「같은 상태가 너무 오래 계속되어 진저리가 날 지경으로 따분하다」고 하고 자세한 의미로서 위와 같이 해설하고 있으며, [지리하다]가 현대어의 [지루하다]로 변했다고 하고 있다.

22) 지루하다의 품사를 (이조어사전)에서는 [(동) 支離하다]로, (우리말큰사전)에서는 [(그)((여벗))]로 설정하고 있는 점도 이 단어가 일반적이지 않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하겠다.

23) 「一疾(일질)이 支離(지니)ᄒᆞ여」와 같이 질병이 길어짐을 형용하는 표현이 종종 눈에 띈다. 「二病支離竟未痊 / 白鷄凶夢忽邃然…」(『玉潭詩集』, 「代洪翰林拜挽申同知」)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Ⅳ. 特殊 用語의 使用

『隣語大方』이 조선 후기에 조선과 일본의 무역 관련자들에 의한 문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지적되었고 또한 그 내용들에서도 여러 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내용 뿐만이 아니라 사용된 어휘에서도 당연히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지금까지 어느 연구 논문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성격을 갖는 몇몇 어휘가 아스톤本에 보이는 점에 대하여 지적해 두기로 한다.[24)]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본고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자어는 현대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게다가 일본과 중국의 한자어사전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어휘들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다음의 어휘들을 보자.

4.1. 어형 조차 확인 불가능한 경우

우선 [貿納]과 [馳通]을 보자. 전자의 [貿納]은

> ◎ 官家(관가)의셔 鐵物(쳘믈) 百餘称(빅여칭)을 貿納(무납)ᄒᆞ라 ᄒᆞ고 各ㅅ(각ㅅ) 數(수)을 定(졍)ᄒᆞ여 맛지시니 나라일을 어이 避(피)ᄒᆞ올고 (一14b)
>
> コウキヨリテツフツ百餘称ヲモトメテヲサムルヤウニセイト、ヲノヽヽスウヲサダメテヲヽセツケラレマシタニヨリ、コウギノ事ヲトウシテサケラレマセウカ。

에서 볼 수 있는데 이 [貿納]은 위 문맥에서도 그리고 일본어 대역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건을 사서 관아에 바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한국자료에서는

---

24) 이 장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어휘면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서, 단순히 표기만이 문제가 되는 Ⅱ장, 그리고 이에 더하여 어휘 자체에 관한 문제가 가미된 성격의 Ⅲ장의 내용과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위 Ⅱ장과 Ⅲ장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지고 본 논문의 주된 관심이 표기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 표기된 어휘의 여러 성격에 있으므로 이어서 논하기로 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臺諫啓前事. 諫院啓曰, 沿海各官各浦煮塩軍, 貿納穀布, 積年未納者, 分徵隣族, 民多逃散. 請蠲之. (『朝鮮中宗實錄』31, 12年12月庚戌)

○ 冬至使行上通事處價本, 自戶曹上下, 貿納本院, 捧上封進. (『尙方定例』1, 「大殿」)

등과 같이 여러 곳에서 보이기도 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한국어 고유의 한자어로 여겨진다.[25]

한편 [馳通]은

◎ 그 所聞(소문)은 잇ᄉᆞ오되 아직 馳通(티통)이 오지 아니ᄒᆞ와 未辯虛實(미변호실)이오매 아직 舘中(관듕)의 去來(거릐)ᄂᆞᆫ 아니ᄒᆞ엿ᄉᆞᆸ닉 (四19b)

ソノサタハゴザレトモ、マタアンナイカマイリマセヌユヱニ、未辯虛実ニヨリ、マタクワンチウニトゞケハイタシマセヌ。

에 보이는데 이 [馳通]이 일본어 대역문에서는 「あんない(案内)」로 번역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案内」란 「事情、様子などを知らせること。しらせ。便り」란 현대어에서의 일반적인 의미 외에 일본의 上代 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官庁で作成した文書の内容」란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위 문맥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여기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馳通]이란 단어는

○ 平安監司閔聖徵馳啓曰, 近聞我國事情, 無不傳通于島中, 此必漢人等, 散在輦轂之下, 隨所聞馳通, 宜搜括漢人之在京者, 一一刷送, 則細作漸息矣 (『朝鮮仁祖實錄』23, 8年12月乙巳)

○ 當此之時。水陸相應。一時合攻。則庶可殲滅。而水陸駐兵。相距隔遠。未易馳通。使籠中之賊。未得全捕。極爲痛憤。(『李忠武公全書』卷之四)

과 같이 한국의 한문자료에서 그 존재를 쉬이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의 한적자료에서의 [馳通]이란 「기밀이나 정보를 수집하여 급히 알리어 줌」[26]을 의미하

25) 元代에 중국에서 간행된 이후 한중일 삼국에서 각각 간행되어 사용되어 온 漢吏文의 특수어휘집인 『吏学指南』에서는 「諸納」항에 [買納] 이하 51개의 관련 표제어를 제시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貿納]은 보이지 않는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 용어로서 사용되었던 단어이다.

4.2. 어형은 존재하나 의미가 다른 경우

한편 한자어의 어형은 확인할 수가 있으나 의미가 확연히 다른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다. [成語]는 한중일 삼국의 고금을 막론하고

> ○ 말을 이룸. 사람들이 만든 말. (『표준국어대사전』)
> ○ 古語で後人に常に引用される語。熟語 (『大漢和辞典』)
> ○ 汉语词汇中特有的一种长期相沿习用的固定短语。(『漢語大詞典』)

라는 뜻으로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27]인데, 이 [成語]가 아스톤本에서는

> ◎ 그것 ᄒᆞ여 가도 올녀가ᄂᆞᆫ 마ᄉᆞ이며 졔 가셔 풀 졔 成語(셩어) 주며 여러 가지 浮費(부비)를 ᄒᆞ매 남ᄂᆞᆫ 거시 무어시 잇ᄉᆞ올고 (二17a)
> ソレヲコシラヱテマイツテモ、ノホセマスルダチント、アレニマイツテウルトキ、コウセンヲクレ、カスゝゝツイヱヲイタスニヨリ、

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장은 위에서 본 일반적인 의미의 [成語]의 뜻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한국어 본문에 해당하는 일본어 대역문에는 「コウセン(口錢)」이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 「口銭」이란

> ○ 思ひのままにとるは口銭 国を治め本意達する陶朱公(還跡) (俳諧『鷹筑波』(1638)五)
> ○ 外国館へ断りて一切此口銭を出さぬ訳に議定して調印迄なしたりしに (『いろは新聞』明治15年(1882)1月17日)

에서 보듯이 「売買のなかだちをした手数料」를 의미하는데 그 대역어가 「성어(成語)」인 것이다. 이는 아스톤本에 쓰인 [成語]가 위에서 본 일반적인 의미로

---

26) 『韓国漢字語辞典』
27) 언어학에서는 관용구 또는 숙어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삼국에서 모두 사용되기도 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사용되어 있지 않음을 확연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실은 여기 사용된 [成語]는 [셩에]의 借字 표기로서 「물건을 사고 팔 때 흥정이 다 된 증거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술을 대접하는 일」[28]을 의미한다. 한편 이 「성어(成語)」는 한국어사 자료에서

○ 成語 셩에 賣買者, 出錢與證人, 會飮謂之成語 (『吏讀便覽』「行用吏文」)

와 같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듯 아스톤本에 보이는 [成語]는 당시의 관용 공문인 吏文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어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듯 관용문서에서 사용되었으리라 여겨지는 용어들은 이외에도 여러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경제활동 특히 조선과 일본의 무역과 관련이 있는 어휘에 많이 보인다는 점이다. 다음의 [捧出], [還報]등의 예를 보자.

◎ 그 쏠 手標(슈표)ᄂᆞᆫ 오ᄂᆞᆯ노 出送(츌송)ᄒᆞᄋᆞᆸ셔야 來日(닉일) 出庫(츌고)의 捧出(봉츌)ᄒᆞᄋᆞᆸ게 ᄒᆞ엿ᄉᆞ오니 이 下人(하인) 回便(회편)의 브ᄃᆡ 付送(부송)ᄒᆞᄋᆞᆸ쇼셔 (一14a)

カノ米テカタハ、今日中ニヲタシ下サレテコソ、明日ノクラタシニウケトルヤウニイタシマスルニヨリ、此ケライノカヱリビンニ必ヲツカワシナサレマセイ。

위 문장에 나타난 [手標] [出送] [出庫] 등의 어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捧出]도 경제활동 용어 중의 하나라 여겨지는데 이를 일반적인 현대어에서는 그 사용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일본의 문헌류에서도 그 사용 내지는 흔적을 찾을 수 없는[29] [捧出]을 한국어 자료에서는

○ 又因倭懇鑞價銀代尺銅六十五稱代納。此則訓導捧出。(『萬機要覽』,「財用編

28) 『漢韓大辭典』

29) 중국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문 예이다.
○ 這日国王排宴, 命諸臣替多九公餞行 ; 飯罷, 捧出謝儀一千両, 外銀百両, 求賜原方, 以為潤筆之費。(鏡花緑 第二十九回)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四」)

○ 行祀後還歸浦上, 以爲捧租之計, 可謂得矣, 雖留連多日, 捧出難捧, 然後可無後悔. (『古文書集成』(海南尹氏篇)28, 「簡札類」386)

와 같이 확인할 수가 있다. 이 예에서와 같이 [捧出]은 「돈이나 물건을 받아 냄」[30]을 의미하는 말로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의미는 아스톤本의 해당 일본어 대역문에 「受け取る」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과도 일치한다.

다음에 보이는 [還報]도 이와 같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용어이다.

◎ 年久(년구)히 買賣(매매)를 ᄒᆞ오매 ᄌᆞ연히 失利之端(실리지단)이 만ᄉᆞ와 舊債(구채)를 지금 還報(환보)치 못ᄒᆞ여 羞愧之心(슈괴지심)이 無窮(무궁)ᄒᆞᄋᆞᆸ기로 오래 긋젓ᄉᆞᆸᄃᆞ니 (六15a)

トシヒサシウセウバイヲイタスニツキ、シセントソンシツガヲヽコサツテ、コシヤクヲ今ニハライエマセイテ、ハヅカシイ心ガカキリモコサライテ、ヒサシクヤメテ居マシタニ、

일본어 대역문의 「古借を払う」와 한국어 문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還報]는 「꾸었거나 빌렸거나 한 돈이나 물건을 갚거나 돌려 줌」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한국자료에서는

○ 先朝甲寅, 以華城城役物力之各處貸下還報次, 本廳五哨鄕軍上番中, 每哨各除二十七名, 合一百三十五名減番. (『萬機要覽』, 「軍政編」三)

○ 茲敢收拾餘存之物。以爲還報之資。不足之數。則請令廟堂裁處焉。(『南坡相國文集』卷之三)

○ 合銀子六千七百八兩重內。四千兩公木一百同換減。二千兩戶曹貸下銀還報。三十三兩三돐二分六里理馬貸銀還報。(『東槎錄』, 「國書」, 江戶例出銀子分派秩)

등에서 그 사용예를 확인할 수가 있다.[31]

30) 『韓国漢字語辞典』

31)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에 다음의 예에서 보이는 [還償]도 있다.
曾已捧納者, 則石数及姓名, 一一開録成冊上送, 以他物計価還償. (『朝鮮光海君日記』 12年3月辛巳)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한 편으로는 경제활동과 그다지 밀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어휘도 있다.

◎ 秋節(츄졀)이 되여시매 思鄕之情(ᄉᆞ향지졍)이 甚(심)ᄒᆞ오되 幹事(간ᄉᆞ)로 온 사ᄅᆞᆷ이 맛다온 일을 竣事(쥰ᄉᆞ)틀 못ᄒᆞᆫ 젼의 도라갈 길이 업서 그 狀啓(장계) 回下(회하) 오기ᄅᆞᆯ 晝夜(듀야) 苦待(고ᄃᆡ)ᄒᆞ여 디내오매 回下(회하) 곳 오ᄋᆞᆸ거든 밤 듕이라도 즉시 알게 ᄒᆞ여 주ᄋᆞᆸ쇼셔 (一10)

シウセツニナツタニヨリ、コケウヲヲモウ心カハナハタシケレトモ、ゴヨウデキタモノカウケタマワリノ事ノコトスミニナラヌマヱニ、カヱルミチモコサラズ、ソノケイフンノクワイカノマイルヲ晝夜苦待テクラシマスルニヨリ、クワイカサヱマイリマシタラハ、夜中タリトモサツソクヲシラセ下サレマセイ。

여기 보이는 [回下]는 그 문맥에서 알 수 있듯이 「장계에 대한 회답, 답장」을 의미하는데 한국 한문에서는 아래의

○ 我國無論早晩, 當待天朝處分, 有所決語, 天朝回下, 今日來到, 則明日本國必當發差, 飛船以報. (『朝鮮宣祖實錄』 三四年)

○ 是日乃禮曹所擇乘船吉日。使臣旣以事封啓。未承回下。 (『海游錄』 上, 五月)

와 같이 [回下]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내는 회답」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回下] 또한 중국이나 일본의 한적에서 그 존재를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닌 단어로 한국에서만 사용된 한자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32]

한편 위에서 보아온 대부분의 한자어가 일본어 대역문에서는 그 의미와 상통한다고 여겨지는 일본의 고유어 즉 「和語」나 다른 한자어로 대응되어 있는데 이 [回下]만은 그 한자를 그대로 이용하고 일본어 대역문에서는 「くわいか」라는 音注를 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くわいか」라는 표기만으로는 단어를 특정할 수 없으나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回下]의 音注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역문에서 이런 표기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일본에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비록 [回下]가 일본

32) 근대의 외국어 사전인 『韓仏字典』(1880), 『韓英字典』(1897)에 두가지 예가 보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어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字句를 통하여 의미의 유추가 가능하므로 音注만을 달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의 자료에서 [回下]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일단은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여하튼 한국어 본문의 [回下]에 「くわいか」라는 일본어에는 없는 音注를 대응시킨 점은 특이 한자 표기어의 대역에 보이는 매우 특이한 사례라 할 수 있다.

V. 맺음말

아스톤本『隣語大方』에는 古來로 漢字를 표기수단으로 삼아온 일본 그리고 중국의 고전적 자료에서 일반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한자어가 다수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한자어 중에는 현대 한국어에서조차 그 사용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상당수 보이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자어를 분석하였다.

먼저 誤記로 보이는 몇몇 단어를 대상으로 그 패턴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단순한 오기로 보이는 경우와 字形類似, 字音類似, 音形類似가 원인으로 보이는 경우의 여러 패턴이 있음을 보았고, 그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音形類似에서 오는 경우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자의 제자 원리인 六書 중에서도 形聲에 의해 만들어진 한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점과 관련되어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通用字, 俗字의 사용이 보이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예들은 한중일 삼국에서 모두 일반적으로 행해져 온 것임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디 한자어가 아닌 고유한 한국어를 한자로 표기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예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들은 모두 당시의 한국어사 자료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임을 타 자료의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였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예를 볼 수 없는 한자어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는 어형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형의 존재는 확인이 되나『隣語大方』에 사용된 의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각각 있음을 보았다. 또한 이러한 예들이 단지『隣語大方』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상은 아니라는 점을 한국의 여타 언어사 자료의 용례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우의 한자어는 경제활동 용어와 행정관련 용어일 경우가 많음도 언급하였다.

아스톤本에는 본고에서 검토한 한자 표기어 이외에도 상당수의 특이 한자 표기어가 확인되는데 이러한 한자어의 존재로 생각해 볼 때『隣語大方』을 포함한 왜학자료의 어휘 관련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하겠다. 한편 본론에서 언급한 한자어가 아스톤本 이외의 異本에서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살펴보지 못했다. 본고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한자어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여 금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佐藤稔(2005)「国字」、前田富祺・野村雅昭編『浅倉漢字講座 1 漢字と日本語』朝倉書店、pp.144-145.

申忠均(1994)「『捷解新語』の改修-原因・理由表現を中心として-」『語文研究』78、九州大学国語国文学会、pp.1-10.

_____(2000)「『隣語大方』諸本の比較考察」『日本学報』45、韓国日本学会、pp.103-116.

_____(2002)「『隣語大方』의 日本語」『日本語文学』13, 韓国日本語文学会, pp.209-228.

_____(2006a)「『隣語大方』の諸本間関係再考」『語文研究』100・101、九州大学国語国文学会、pp.163-174.

_____(2006b)「明治刊本『隣語大方』의 韓国語」『日本語文学』31, 韓国日本語文学会, pp.129-49.

_____(2010)「아스톤本『隣語大方』의 漢字語 対訳」『日本語文学』47, 韓国日本語文学会, pp.101-120.

오오츠카 타다쿠라(大塚忠蔵)(2003)「『交隣須知』에 나타난 韓国語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학위논문, pp.130-131.

이형미(2007)「『隣語大方』의 이본에 나타난 한국어의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pp.124-127.

鄭光・鄭丞恵・梁伍鎭(2002)『吏学指南』, 태학사, pp.197-199.

片茂鎭・岸田文隆(2005)『隣語大方 解題・索引・原文』, 不二文化

檀国大学校附設東洋学研究所(1996)『韓国漢字語辞典』, 檀国大学校出版部

檀国大学校附設東洋学研究所(2008)『漢韓大辞典』, 檀国大学校出版部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劉昌惇(1964)『李朝語辞典』, 延世大学校出版部
諸橋鉄次(1976)『(修訂版)大漢和辞典』大修館書店
韓国精神文化研究院(1995)『17세기 국어사전』, 太学社
漢語大詞典編輯委員会編(1994)『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국어사말뭉치』(21세기세종계획), (2010) http://www.sejong.or.kr/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한국고전종합DB』(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漢籍電子文献』(台湾 中央研究院) http://hanji.sinica.edu.tw/
『漢典』http://www.zdic.net/cd/

❖ 투고일 : 2011.12.31
❖ 심사일 : 2012.01.27
❖ 심사완료일 : 2012.02.0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